◇ 나의 體驗 ◇

學業과 創作 사이를 오가며

—八年 留學記—

許 世 旭
(韓國外國語大 東洋語大學長)

1960년 11월 어느 날.

나는 비가 내리는 基隆, 제16 부두에 내렸다. 나흘을 배멀미로 그 하얀 시이트에서 몸부림했으나, 두 눈에 가득히 짙푸른 녹음이 들자 내게도 생기가 돌았다. 나는 한 손에 옷 뭉치, 또 한 손에 미군들의 모기장, 이렇게 피난민 보따리 같은 짐을 들고는 끙끙거렸다. 나는 그 길로 基隆驛에 가서 내가 소유한 총재산을 대만돈으로 바꾸고, 다시 가장 싸구려 완행열차를 타고 臺北에 내렸다. 臺北驛에서 다시 三輪車, 그 삐걱거리는 바퀴와 씰룩거리는 車夫의 궁둥이를 보면서 臺灣師大의 대학원생 기숙사였던 僑教館까지 드디어 나 혼자만의 힘으로 入住했다.

그 이튿날 등록과 함께 나는 당장 강의에 들어갔다. 벌써 개강된 지 한달이 훨씬 지난 뒤라서, 이 나라 문교부의 초청 장학생이 아니었으면 등록마저 어림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날 첫 강의부터 아유 딱 질색이었다. 그게 헤쳐나갈 수 없는 수렁이나, 도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동굴이었다. 우선 노교수들의 심한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건 깜깜한 밤, 깊은 늪을 허우적거리는 격이었다. 거기다가 이 師大 大學院의 中文科 教科課程은 억장이 무너지듯 망망했다.

당시 自由中國에 中國語文學을 전공할 수 있는 大學院은 단 두 군데뿐이었다. 하나는 師大, 하나는 臺大(臺灣大學)였다. 그것도 博士課程을 둔 곳은 師大뿐이었으니, 師大는 가위 中國語文學 연구의 최고 요람이었다. 그런데 師大 大學院 中文科의 教科課程은 國學研究의 本山으로서 經學이나 子學은 물론 中國國學研究의 基礎科目인 聲韻學, 文字學, 版本學, 校勘學, 訓詁學, 目錄學 등을 망라하였기로 文學의 연구는 오히려 副次的인 인상마저 풍겼다.

그도 그럴 것이 1949年 中華民國이 대륙에서 철수 당시, 文學과 哲學의 권위교수들이 모였던 北京大學의 일파는 臺灣大學을, 經學, 子學 등 國學과 基礎學問을 리드했던 南京學派들이 師範大學을 중심으로 각각 활동을 폈기 때문이다. 그래서 師大 쪽에는 清末 國學大師였던 章太炎, 黃侃 등의 門生들인 潘重規, 高明, 林尹 등의 교수가 이미 築城을 마친 뒤였다.

거의 必須選擇된 科目은 廣韻研究와 治學方法, 中國經學史, 文字學이었다. 抒情性이나 審美性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내용들이었다. 그것들이 모두 낯설었지만, 그를 위한 애습이나 복습과정이 지겨웠다. 그 중에도 廣韻은 中古音을 연구하는 韻書研究로서 날마다 聲別, 韻別의 類表를 만드는 일인데, 206 韻을 하나하나 풀으면서 反切을 적는 일은 일종의 役事에 상당했고, 治學方法이란 물론 中國學術을 연구하는 길과 방법, 그리고 자료와 그 眞假를 변별

하는 공부인데도 治學하는 演習의 일환으로 十三經을 圈點하는 작업이었다. 圈點이란 새까만 줄글에다 句讀點을 찍는 일로서 文理를 터득케 하는 가장 힘든 苦行의 한 가지였다.

이렇게 한 주일을 시달린 뒤, 나는 김치가 되었다.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頭疼를 면치 못한데다 머리는 쑤셨고, 가슴은 심한 갈등으로 다듬이질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내게는 종교도 없었고 몸에 익힌 嗜好도 없었다. 나는 臺灣에서 한 주일이 지난 첫번째 공일 아무도 몰래 나 혼자의 外出을 나섰다.

유학을 오기 전 나는 中國의 現代詩를 애독했었다. 유학을 떠나오던 해의 바로 그 여름 애독했던 시집으로 「해바라기」가 있었다. 나는 그 시집에 적힌 주소대로 詩人 覃子豪의 집을 찾았다. 홀아비로 사는 老詩人을 만나서 통하지도 않는 중국어로 한나절을 꼬박 지껄였다.

당시 臺灣詩壇의 원로였던 그 분과의 대담에서 나는 베설 이상의 통쾌한 흥분을 맛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후련했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댁에서 물러나려던 황혼, 나는 또 하나의 天生의 同類를 여기서 만난 것이다. 바로 젊은 詩人 楚戈였다. 그때 이 친구의 행색은 시골서 갓 올라온 청년으로 모두가 꾀죄죄했다. 알고 보니 대륙에서 건너온 학병 출신의 하사관, 모처럼 공일을 틈내 원로 시인을 찾아온 것이다.

우린 그날 밤 臺北의 어느 길거리 싸구려 포장집에서 몽땅 취했다. 詩도 얘기했고 藝術도 얘기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똑바로 交流되진 못했다. 어쩌면 그 친구의 천재가 번득이는 눈빛으로 이야기한 것이라야 옳았다.

나는 그 다음주를 목마르게 기다렸다. 楚戈가 오기로 약속했기에 말이다. 이번엔 한 떼를 거느리고 왔다. 愁予·商禽·辛鬱·梅新 등 모두 쟁쟁한 青年詩人이었다. 머지 않아서 臺灣詩壇의 元老인 紀弦·鍾鼎文을 비롯해 瘂弦·洛夫·張默·羊令野·葉維廉 등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과 매주 만났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아예 중국어로 현대시를 쓰면서 그들의 행열에 끼고 싶은 冒險心이 생겼다. 나는 이 해 세모, 징금벨이 울릴 때 국도의 피곤과 국도의 고독을 창작으로 구제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런 결심을 내리자 점점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나의 중국어 작문 실력을 배양하겠다는 기도가 있었고, 아주 아주 운수가 좋은 날 나의 文名을 중국에 남기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이 작용했고, 그리고 고뇌의 내 젊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싶었다. 그래서 당장 習作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冒險은 분명코 나의 과거나 현재에 叛逆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한국에서 이른바 양반의 자식으로 「眞書」를 공부한 書堂房의 막둥이였었다는 점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臺灣省立師範大學 國文研究所」는 가장 復古的인 國學教育機關으로 일체의 新文學 研究나 新文學 創作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말하자면 나의 同學들은 中國國學의 孝子들이었고 스승들은 모두 國學의 守護者들이었다.

나는 1961년 봄, 나의 中文 處女詩인 「名字」와 「願」이 당시의 순문학 계간지인 「現代文學」에 실려나옴으로써 中國詩壇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의 흥분은 물론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모험적인 시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기왕 시작한 김에 散文을 쓰고팠다. 산문을 쓰려는 의지는 보다 학습적이었다. 나는 산문의 창작을 통하여 내가 언젠가 극복해야 할 中國現代文의 고비를 넘고자 했다.

나는 원고지에 산문을 썼다. 말이 창작이지 여러 사람의 여러 작품에서 한 귀절 두 귀절씩 표절하여 裁縫한 셈이었다. 그런데 그 표절된 재봉의 작문을 내가 사숙하던 당대의 원로 작가인 謝冰瑩교수에게 갖다 드리면서 지도를 청할 때마다 내 원고지는 으레 빨갛게 개꼬리되었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면서 내 원고지엔 점점 빨간 펜글씨가 줄었다. 그래도 나는 거의 격주의 빈도로 한 편씩 써서 謝先生께 갖다 드렸다.

그렇게 흘어오던 1961년 9월, 순문학월간지 「作品」엔 내 中文隨筆로의 처녀작인 「一棵樹」와 「避難」이 謝교수의 추천으로 발표되었다. 정말 나도 몰랐던 일이었다.

나의 이러한 「叛逆的」소행은 어쩔 수 없이 나

의 科主任의 귀에도 파급되었고, 세월과 함께 나의 中文創作은 발표의 빈도가 잦아졌다. 그것이 발표될 때마다 活字가 주는 야릇한 흥분이 있었지만 그보다 나는 보다 착잡한 모순에 빠져들었다. 우선 내가 공부하는 학문과 내가 즐기는 창작 사이의 시간대가 너무 현격했다. 위로는 最古의 古典에서 아래로 前衛的인 現代였다. 나의 師友들은 古典을 正統視한 나머지 심지어 어떤 이는 現代詩를 異端視했으니, 물론 내가 正統學問의 孝子가 아님은 뻔했다.

그래서 결국 變裝을 하기로 했다. 1962年 가을부터 나는 「許素汀」이란 筆名으로 現代詩나 現代散文을 발표했으니, 科主任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로 그 뒤의 조치였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길에선 피할 수 있었으나 나 스스로의 갈등과 고민은 쉽게 미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가슴과 머리가 각각 뜨거웠기 때문이다. 1963년 1월 나의 석사논문「李杜 比較研究」가 1968년 12월 나의 박사논문「韓中詩話淵源考」가 각각 통과되기까지 나는 심하게 머리를 혹사시켰고 1968년 12월 귀국할 때까지 발표했던 80여편의 창작을 낳기까지 줄곧 가슴을 조였었다.

그 두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비록 그 생산지의 충돌은 없다 할지라도 무리는 여전히 실각했었다.

하나가 머리에서 생산되는 科學이라면, 하나는 가슴에서 표현되는 藝術이다. 차갑던 머리에 뜨거운 서정을 교류시킬 때 느끼는 漏電現象, 거기에다 뜨거운 가슴에서 차가운 머리로 전환시킬 때 빌어지는 축축한 濕度와 時間差 때문에 한동안 괴로왔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는 동안 두려움을 좇지 못했다. 이러다가 학업을 황폐시키면 어쩐담? 아니 두 가지를 몽땅 낭패시키면 나는 정말 어쩐담?

그러나 내게는 신념이 있었다. 쓰이는 문자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 문장이 유창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절실한 고뇌를 기록하는 일이란 나의 최후적인 권위라는 생각 말이다. 설령 그 기록에 불성실할지라도 副産物 한 가지는 수확할 수 있기에 말이다. 그것은 중국어 작문 능력이었다.

'63년 1월 나의 석사논문이 통과되었다. 그 무렵 나는 또 한 가지 무모한 挑戰을 벌였다. 내가 中國에 유학온 지 2년 반만에 새삼스레 내 祖國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臺灣의 학술계는 한국의 역사문화를 從屬的인 문화로 간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에도 한국의 문자나 언어가 있느냐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았었다. 그래선지 멀리서 보는 祖國이 한층 錦繡로 보였다. 그 第一步를 '62년 여름 내딛었다. 우선 金素月詩 네 편을 당지의 詩전문지인 「現代詩」에 譯載했는데 반응은 의외로 좋았었다. 그 뒤로 간간이 우리 詩를 소개했었다.

때마침 「作品」誌에선 나더러 「春香傳」 中譯을 청탁해 왔다. 「作品」의 주간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한국 오페라단이 공연하는 춘향전을 보고 나서 거기에 홀딱 반했다는 얘기였다. 사실 말이지 「春香傳」이 우리들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인데다 내 고향이 南原이었기에 더욱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춘향전을 정독한 사실이 없었고, 더구나 판소리체의 그 리드미칼한 소설을 중국어로 옮길 엄두가 나질 않았다.

나는 무모하게도 응낙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 편지해서 春香傳 完版本을 구했고, 李家源·金思燁·金東旭님의 註釋本도 아울러 구했다.

譯業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우리말을 풀이하는 데도 아리송했다. 하지만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 나는 그 譯文을 내 知友인 楚戈에게 수정을 받고 그 달부터 잡지사에 넘겼다. 原文을 풀이하고 옮기고, 고치고, 쓰고…… 나는 고된 마라톤을 뛰었다.

드디어 「春香傳」은 「作品」誌 1963년 1월호에서 8월호까지 번역 연재되었다. 중국땅에 역사이래 최초로 소개되는 한국 문학작품으로서의 「춘향전」은 8개월 연재중 많은 흥미와 물의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독자들의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더러는 南原이 중국의 어느 地名이냐고, 더러는 춘향전이 중국의 越劇을 소설화한 것이 아니냐고? 처음부터 자세히 읽지 않은 독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고전 소설로 오인했는데 그만큼 그 속엔 중국의 史實이나 風物이 많았던 탓이었다.

'63년 8월 나는 博士班에 응시했다. 다행히 합

격된 뒤 나는 보다 느긋하게 우리 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훨씬 시간을 아꼈다.

그런데 힘든 학업에다 틈틈이 창작과 번역에 여념을 다하기란 너무 벅찼다. 더구나 碩士班에 이어 古音硏究, 三禮硏究, 版本學, 文字學, 目錄學說文 등의 딱딱한 古典硏究 외에 理論文學, 中國文化綜合硏究, 學術流變史 등의 應用科目 등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다.

박사반에 진학한 지 3,4학기는 주로 漢代에서 南北朝에 이르는 民歌와 樂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를 박사논문으로 발전시켜 볼 생각까지 했으나 겨우 「孔雀東南飛之起句考」란 짧은 論文 한 편을 「大陸雜誌」(1964年 7月號)에 발표하곤 걷어치우고 말았다. 樂府를 깊이 들어가려니, 漢魏 때의 音樂연구가 있어야 했고, 樂器에 대한 참고도 있어야 했는데 자료의 구득난으로 도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 돌아선 것이다.

한편 自國文學에 대한 애착은 갈수록 진했다. 결국 1964년 10월 「韓國詩選」(文學書局)을 출간함으로써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韓國詩選」은 비록 詩人 37분의 73편에 불과했지만, 우리 신문학이 최초로 중국에 소개된 단행본이었다. 우리 나라에선 徐廷柱님과 金信大使, 중국에선 紀弦과 黃季陸 문교부장관이 序文을 쓸으로써 初有의 選集을 기념했다.

이 선집을 내기까지 나의 知友요 中國詩壇의 중견이었던 鄭愁予의 도움이 적지 않았지만, 중국에 유학한 지 4년만에 내놓는 성적표에 상당한 것이라 내심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책이 나오자 나는 중국 시단의 거의 모든 시인에게 기증했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많은 격려와 서평을 받았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적인 것은 한국인의 고난과 애수에 공감한다는 우정 어린 의견들이었다.

「韓國詩選」에 이어 '63년 번역 연재했던 「春香傳」이 1967년 10월, 臺北의 商務印書館에서 출판되었다.

1966년 여름, 박사반 綜合試驗에 합격하자 졸업논문을 시작했다. 나는 결국 韓中比較文學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때의 比較文學이란 몹시 적막했었다. 그런데도 감히 그 쪽에 투족한 것은 그동안 우리 문학을 소개했던 인연으로 생각된다. 나는 우선 중국의 詩話를 모두 수집, 그걸 독파하면서 스스로 분류 요약하는 한편 韓國의 詩話를 수집했고, 곧 이어 中國과의 淵源關係를 고찰, 결국 1968년 7월 박사논문인 20여만자의 「韓中詩話淵源考」를 탈고했다.

그리고 論文試驗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나는 「韓國文學散論」이란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소개를 내용으로 한 평론을 「中國靑年戰士報」란 신문에 '68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매주 한 편씩 연재함으로써 나의 中文文筆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2월 1일 논문이 통과되자 축하의 인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막을 내리곤 귀국선에 올랐다.

꽃다운 젊음을 열대에 묻고 그 대가로 8년 동안 줄다리기하여 얻은 두 장의 졸업장, 그보다는 8년을 증언하는 고뇌의 기록을 남겼고 우리들 문학의 혼을 중국에 상륙시킨 것이 소중하리라 믿으며 지금도 반역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